

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, 151개 건설현장 직접 찾아가는...안전·품질 교육 강화

✎ 박나라 기자 | ⓒ 승인 2025.05.28 17:40

220명 대상 현장 맞춤형 교육 실시...중대재해 예방·품질관리 역량 제고 목표

[농수축산신문=박나라 기자]

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(본부장 이민수)가 관내 농업·지역개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 향상을 위해 본격적인 현장 맞춤형 교육에 나섰다.



당진지사 '찾아가는 안전·품질관리 교육'

본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충남 전역 151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총 220명에게 '찾아가는 안전·품질 관리 교육'을 직접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.

이번 교육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, 지역개발사업, 유지관리사업 등 충남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하며, 현장 여건에 맞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됐다.

안전교육은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를 바탕으로 △추락 △물체에 맞음 △넘어짐 △부딪힘 등 주요 재해 유형별 예방 대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.

특히 5대 고위험 작업에 대한 점검 항목, 위험성 평가, TBM(작업 전 안전교육), 일일 안전점검일지 작성 등 법정 안전관리 절차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 실무자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.

품질교육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국토교통부 품질관리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△가시설 자재 품질시험 △중점 품질관리 대상별 관리방안 등 공사 품질 확보에 필요한 실무 지식을 전달한다.

이민수 충남지역본부장은 "농업기반시설 공사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, 현장의 작은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"며, "책임자의 경각심과 실무자의 현장 대응력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을 꾸준히 추진하겠다"고 밝혔다.

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정착과 품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, 농업기반시설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.



박나라 기자 nara79@afnews.co.kr